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으로

- 선수를 빛낸 올림픽유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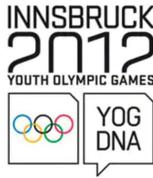
임효성 limhyosung@anyang.ac.kr  
안양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국제스포츠, 스포츠교육, 체육정책에 관심

##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sup>1)</sup>

청소년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가 주관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스포츠대회로 15~18세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이다.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계 대회는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대회를 시작

으로 2020년 로잔대회까지 총 3번의 대회가 치러졌다. 이전 대회는 모두 유럽에서 이루어졌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된 대회이다. 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청소년에 의한(For, with, & by Youth)” 대회이다. 올림픽과 공통점도 있지만 스포츠, 경쟁 외에 청소년의 참여와 교육·문화 활동을 중시한다는

1)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2024). 청소년올림픽 소개. <https://www.gangwon2024.org/pages/yog-olympics>



© 국제올림픽위원회 누리집 제공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는 ‘즐거움과 성장이 되는 스포츠, 공존과 화합으로 여는 평화로운 미래’라는 비전을 잘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발견과 만남, △연결과 도전, △공존, △지속가능성이라는 4가지 실행영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Grow Together, Shine Forever)’였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 4개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역대 동계청소년올림픽 최대 규모로 78개국, 1,802명의 청소년 선수가 7개 종목, 15개 세부종목, 81개 세부 경기에 참가하였다.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곳으로 이번 대회에는 그 시설적 유산이 적극 활용되었는데, 강원 2024는 신설하는 경기장

없이 평창 2018의 경기시설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비용 절감은 물론 지속가능한 청소년올림픽이어야 한다는 IOC의 기조에 충실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어린 선수들에게 몇 년 전 올림픽이었던 같은 경기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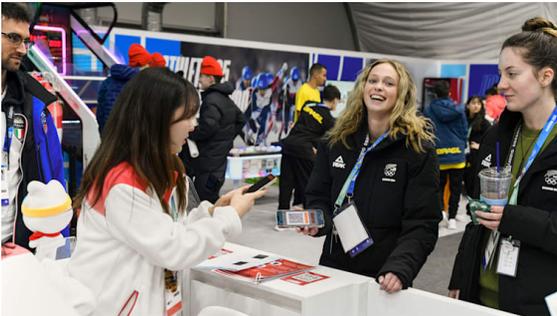
### 청소년올림픽 취지가 빛나는 교육, 문화올림픽<sup>2),3),4)</sup>

첫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올림픽이 지향하는 교육, 문화가 빛나는 대회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청소년올림픽이 경쟁을 넘어 전 세계 청소년이 우정과 문화를 나누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고 각국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2)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폐막…승리보다 빛나 14일간의 도전. [https://blog.naver.com/mcst\\_pr/223344540861](https://blog.naver.com/mcst_pr/223344540861)

3) 국제올림픽위원회(2024). 청소년 스포츠 행사에서 YOG 교육프로그램. <https://olympics.com/ioc/education/yog-education-programme>

4) 국제올림픽위원회(2024). 강원 2024, 유산과 연대의 사례로 막을 내리다. <https://olympics.com/ioc/news/gangwon-2024-comes-to-an-end-as-an-example-of-legacy-and-solidarity>



© 국제올림픽위원회 누리집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청소년 선수들은 영국, 아이브, 르세라핌 등 우리나라 K-팝스타들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경쟁을 잇고 K-컬처를 만끽했다. 이외에도 국악과 태권 등 공연이 연일 이어졌고, 선수들은 한복 입어보기, 투호놀이, 달고나 만들기 등을 즐겼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2010년 청소년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10,000명 이상의 청소년 선수에게 YOG(Youth Olympic Game) 선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장과 일상생활에서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고, 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청렴한 선수의 보호’, ‘경기력 향상’, ‘스포츠 이후 선수’라는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둔 일련의 교육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대회기간 동안 선수촌에서는 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상호작용방식의 재미있는 학습경험이 제공되었다. 1,800명의 선수 중 약 93%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올림픽과 스포츠가 제공한 학습경험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를 비춘 디지털올림픽<sup>5),6)</sup>

둘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는 디지털로 미래를 비추었다. 먼저 최초로 시도된 올림픽 메타버스 플랫폼인 ‘버추얼 강원’이 제공되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만든 아바타로 하여금 3D 가상세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올림픽경기장과 선수촌을 둘러보고, 4개의 개최도시 곳곳을 방문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또한 대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이들도 메타버스를 통해 올림픽 가치와 스포츠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성화는 국제스포츠의 중요한 화두인 ‘지속가능성’을 멋지게 이끌어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실시간 날씨데이터를 적용해 현장감을 가미하고, 아나몰픽 기술로 보다 역동적이며 생생한 성화 불꽃의 모습을 대회기간 동안 구현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디지털화된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5)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2024). 강원 2024 대회 올림픽 최초 메타버스 출시. [https://media.gangwon2024.org/bbs/board.php?bo\\_table=sub04\\_01&wr\\_id=127&page=5](https://media.gangwon2024.org/bbs/board.php?bo_table=sub04_01&wr_id=127&page=5)

6)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2024). 청소년이여, 우리 함께 빛나자 Let us shine. [https://media.gangwon2024.org/bbs/board.php?bo\\_table=sub04\\_01&wr\\_id=158&page=3](https://media.gangwon2024.org/bbs/board.php?bo_table=sub04_01&wr_id=158&page=3)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제공, 국제올림픽위원회 누리집 제공

## 빛난 평창 동계올림픽 키즈<sup>7),8)</sup>

셋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동계스포츠의 성장세를 아낌없이 보여줬다. 대한민국은 남자 쇼트트랙 1,500m 경기에서 첫 메달을 알렸다. 그 주인공은 주재희(금메달), 김유성(동메달)이다. 직전 대회인 2020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까지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피겨 등 빙상종목에 편중되어 8개의 메달 획득에 그쳤지만, 이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은 물론, 스피드 스케이팅, 봅슬레이, 스키, 스노보드, 여자 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고르게 값진 성적을 거두었다. 최종일까지 대한민국선수단은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 총 17개의 메달을 합작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다. 특히 피겨 스케이팅의 김현겸, 스노보드의 이채운 선수는 2관왕을 달성하며, 동계종목의 미래를 밝혔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도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조직위원회는 메달 획득현황을 게시하고, 시상식도 올림픽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올림픽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가별 종합순위를 집계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올림픽과 차이가 있다. 조직위원회의 일일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청소년올림픽은 올림픽운동의 확산을 가치로 선수들의 경쟁보다는 화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체성을 달리하고 있다.

7) 대한체육회(2024). 기록으로 다시보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https://blog.naver.com/sports\\_7330/223342319957](https://blog.naver.com/sports_7330/223342319957)

8) 연합뉴스(2024). [청소년올림픽] 시상식서 당연히 국가 연구...메달 집계하되 순위 안 매겨.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0033100007>



© 국제올림픽위원회 누리집 제공

### 눈없는 나라 선수의 빛나는 도전<sup>9),10),11)</sup>

넷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사업의 성과가 온전히 실현되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비전은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이었는데, 그 2018 평창의 비전이 2024 강원에서 빛을 발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사업 중 하나인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참가한 튀니지의 조나단(Jonathan LOURIM) 선수, 태국의 아그네스(Agnese Campeol) 선수는 봅슬레이 1인승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여 자국의 첫 동계종목 메달을 안겨주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과 대회참가가 어려운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에서 초청된 100여명의 청소년 선수들에게 훈련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프로젝트 수혜자 중 9개 국가, 29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고, 특히 알제리, 나이지리아, 푸에르토리코, 튀니지, 아랍에미리

트는 동계올림픽 첫 출전으로 기록되었다.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은 “진정한 올림픽 연대의 위대한 표현”이라고 말하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밖에도 2004년부터 이어진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까지 97개국 2,528명의 청소년에게 동계스포츠와 한국문화를 전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3-23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 스포츠 체험이 쉽지 않은 국가 청소년이나 해당 종목에서 우수한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을 강원도 평창으로 초청하여 설상 및 빙상 스포츠 훈련과 문화를 체험하도록 돕고 있다. 20년 동안 150명 넘는 국제대회 출전선수와 17명의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출전선수를 배출해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출전선수를 위한 사전훈련프로그램, 지도자교육, 지상훈련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 국제올림픽위원회 누리집 제공

9) 문화체육관광부(2024).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올림픽 ‘강원2024’,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빛났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Seq=20831&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Actio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Seq=20831&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Actio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10) 국제올림픽위원회(2024). 강원 2024, 유산과 연대의 사례로 막을 내리다. <https://olympics.com/ioc/news/gangwon-2024-comes-to-an-end-an-example-of-legacy-and-solidarity>

11) 2018평창기념재단(2024). 드림프로그램. <https://legacy2018.or.kr/%EB%93%9C%EB%A6%BC%ED%94%84%EB%A1%9C%EA%B7%B8%EB%9E%A8>



## 다시 빛나자<sup>12),13),14)</sup>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2월 1일 폐회식을 끝으로 1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된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6년 전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되었던 12개 시설 중 7개 시설이 활용되었으며, 조직위원회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평창동계올림픽 예산(2조7890억원)의 3.5%에 불과한 967억원으로 치렀다고 밝혔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경험한 전문인력이 인적 유산으로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곳곳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상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여러 과정과 성취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이어진 선수를 빛낸 유산이다. 평창 2018에서 올림픽언의 꿈을 키운 평창키즈가 강원 2024에 출전하여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미래가 되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후 수행된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선수 육성 프로젝트의 수혜자들이 고국의 첫 동계올림픽 출전과 첫 메달을 안겼다. 이 모두 미래세대인 청소년 선수에게 지난 올림픽이 남겨준 유산이고, 이를 통해 청소년 선수들이 빛났다. 이는 올림픽이 남긴 인적 유산의 좋은 선례가 되어주었다.

올림픽유산은 올림픽을 개최하면 자동으로 남겨지는 ‘유물’이 아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획되고 실

천하고 조정하는 지속적 과정에서 창출되는 ‘의도적 산물’이다. 폐회식의 주제는 ‘다시 빛나자(Shine again)’였다.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 발견한 <자신 안의 빛>을 다시 빛내자는 다짐과 함께 모두의 마음속에 반짝이는 밝은 빛을 안고 각자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아마도 이들은 다음 동계올림픽의 주역이 될 것이다. 필자는 올림픽 개최와 운영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가치로운 산물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세대라 주장한다. 따라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금, 우리는 이번 대회가 남긴 인적 유산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야 한다. 긴 호흡을 가지고, 이번 청소년올림픽을 깊이 있게 되내어보고 대회의 성취를 정돈된 유산으로 쌓아 계속하여 미래세대를 향해 비추어내길 바란다.



© 국제올림픽위원회 누리집 제공

12) 문화체육관광부(2024). 안정적 운영·흥행 성공…평창 유산 이은 강원2024가 남긴 성과.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7467>

13) 연합뉴스(2024). 14일간 열전이 남긴 새로운 강원유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1085900007>

14) 염도민, 김진기, 김승희, 이원혁(2103). 평창동계올림픽의 파급영향과 유산. 춘천: 강원발전연구원.